

2013. 2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2013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 일 시 | 장 소 | 참석인원 수 | | 비 고 |
|------------|---------------|--------|-----|-----|
| | | 위 원 | 방송국 | |
| 2013.2.26. | 대전MBC 대회의실 | 9/10 | 6 |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김형주 위원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종국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현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 방송 편성 | 방송프로그램 | | | | | 자체 심의규정 | 합계 |
|----------|--------|----|----------------|----|----|------------|----|
| | 보도 | 교양 | 연예·오락 (스포츠) | 기타 | 소계 | | |
| - | 7 | 9 | - | 2 | 18 | - | 18 |

나. 사업자 반영(건수)

| 구 분 | 수 용 | 의견참고 | 반 론 | 계 |
|-----|-----|------|-----|----|
| 건 수 | 6 | 12 | - | 18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 구 분 |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 조치내용 | 제시 월 |
|-----|------------------------------------|-------------------------------|------|
| 계 | 5 건 | 5건 | 1월 |
| 기타 | 홈페이지 다시보기 화면크기 조정 | 다시보기 화면 크기 확대 화질 개선 | 1월 |
| 보도 | 토론 프로그램 제작시 이슈를 확대하여 충청권 소재도 다루길 | 이슈 소재 대전권에 머물지 않고 충청권역으로 확대 | 1월 |
| 교양 | 교양 프로그램 스튜디오 제작 탈피 야외에서도 제작 진행 필요 | 이슈별 야외 현지 진행 | 1월 |
| 보도 | 뉴스투데이의 '이슈 인' 코너 인터뷰 대상자 기관장위주 탈피 | 인터뷰 대상자 기관장 탈피 화제의 인물로 포커스 전환 | 1월 |
| 기타 |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대전MBC 시청이 잘 안되는 가구 조사필요 | 현장 방문 조치함 | 1월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 요 청 내 용 | 조 치 내 용 | 조치일자 | 비고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 성 명 | 생년월일 | 전·현직 | 변동사유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 요청자(단체) | 공개내용 | 공개방법 |
|---------|---------|------|
| | 해당사항 없음 | |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 구분 | 성명 | 전·현직 | 추천단체 | 추천부분 | 변동사유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교양 | <p>‘테마기행 길’(2월 12일)에서는 경상남도 의령의 문화재에서부터 지역음식, 관광지까지 다양한 정보를 만나 볼 수 있었다. 여행지를 소개해주는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한 두 곳의 관광지를 소개해주는데 반해, ‘테마기행 길’의 경우에는 1시간 동안 한 지역의 여러 관광지를 소개시켜주는 방식을 택하여, 마치 하루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대리만족을 하며 시청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이었다. 주말여행을 계획하는 시청자들의 경우 이 프로그램만 잘 보아도 하루 일정의 코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지역 색이 묻어나는 말투를 사용하여 실제 그 지역을 방문한 듯 친근감을 느끼게 해 주었지만, 때때로 주요 정보를 전달해 줄 때에는 성우가 등장하여 정확한 표준어로 정보전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었다.</p> <p>다만 진행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아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게 평가되지 않았으며, 진행자들이 여행을 즐기는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장소에 대한 정확한 위치나 요금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오덕성).</p> | <p>‘테마기행 길’은 지역 민방 소재 9개 지역MBC가 공동 기획 제작하는 방송이다. 각 지역방송사가 향토색 짙은 내용의 방송을 전국에 방영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 그 지역의 말투와 사투리가 조금씩 섞인다. 하지만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표준어 구사는 방송의 기본이기에 9개 지역MBC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정확한 방송에 힘쓰겠다. 또, 위치나 요금 등은 방송법상 표현의 한계가 있다.</p> | <p style="text-align: center;">편성 의견참고</p> |
| 교양 | <p>최근 4년제 대학의 졸업자 평균 취업률이 59.2%에 불과하다는 기사를 본 후, 대전 MBC TV특강 “기업이 원하는 성장형 인재의 3가지 비밀” 편(2월 17일)을 접하게 되어 흥미를 갖고 시청하게 되었다. 이번 TV특강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성장형 인재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주도성 갖기,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기, 계획적인 시간관리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강연을 해주었다. 이는 인생의 방향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영어성적 올리고, 자격증 하나 더 따기 급급한 젊은이들에게 다시 자신의 삶을 한발자국 떨어져 바라보고 방향을 설정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유익한 강연이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p> | <p>TV특강은 지역MBC 13개사가 공동기획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훌륭한 강사를 발굴해 지역민들에게 건강한 정보와 지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p> <p>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강사 발굴과 질 높은 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 <p style="text-align: center;">편성 수용</p>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p>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자기개발서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시간이었다. 다만 당장의 취업이 급한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쯤 인생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오덕성).</p> | | |
| 교양 | <p>공간 다큐멘터리 그 곳 「골목마다 이야기가 흐른다: 말바우 시장」 편(2월 18일)을 시청하였다. 시끌벅적한 예능프로그램이 많은 시간대에 편성된 본 프로그램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시청자가 흐뭇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기존의 다큐멘터리는 리포터나 유명 배우가 함께 동행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별한 진행자의 출연 없이 연출진이 시장상인을 비롯한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과 격없이 편안한 말투로 친근하게 대화하는 형식이 본 프로그램의 리얼리티를 부여했던 것 같다. 기존의 잘돈된 느낌의 다큐멘터리에 비해 인터뷰 내용이나 편집된 영상이 다소 투박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던 듯 싶다.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는 누가 봐도 특별하거나 자극적이어서 이목을 끌만한 소재를 다루고, 리포터나 유명한 방송인들의 인터뷰나 직면한 소재에 대한 반응이 다소 포장되고 뻔한 장면들이 많이 보여진다. 이에 반해 '공간 다큐멘터리 그 곳'은 일반적인 소재를 가지고, 꾸밈없는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다큐멘터리에 싫증을 느끼던 시청자의 입장에서 되려 신선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오덕성).</p> | <p>요즘 휴머니즘 위주의 인물 다큐가 주류인데 <공간 다큐멘터리 그 곳>은 좀 다른 시각으로 다루고자 부산,광주와 공동으로 2월부터 제작하였다. 방송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다양한 인물들의 꾸밈없는 접근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p> <p>방송은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신선한 소재가 관건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섬 주민들을 진료하는 병원선' '국군간호사관학교' '금녀의 집, 수도권' 등 다양한 소재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p> | <p>편성 수용</p> |
| 교양 | <p>시사플러스에서 「벼랑 끝에 선 사람들-유성기업 노동자」 편(2월 22일)을 방송하였다. 그 당시 사회적 이슈가 컸던 유성기업사측과 노동자와의 갈등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갈등이 이어 오고 있는 이유를 짚어보고 있다.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유성기업 노동자 조직의 와해 뒤에는 창조건설팅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지역에 창조건설팅의 개입으로 유성기업과 마찬가지로 '한성실업과 만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속 취재를 기대한다(장동환).</p> | <p>건설한 지역중소기업이었던 '유성기업 사태'는 참 안타깝다. 노사가 잘 화합해서 발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2년 전에도 취재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 같다. 다른 기업도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겠다.</p> | <p>편성 의견참고</p>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보도 | <p>뉴스데스크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2월 18일) 문제가 잘 진행되는 듯 보도되었다. 지역민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프레임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이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2000년에 환경연합운동에서 반대를 했고 2002년에는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외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이 반대하였고 2007년에는 이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었다. 지역개발 이슈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같은 이슈를 뉴스 취급할 때에는 단편적 접근은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진행적인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뉴스 기능에는 사회조정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송인덕).</p> | <p>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태안 기름유출 사고 이후 해당 지자체들의 대형 개발위주의 지역발전 전략의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취재하도록 노력하겠다.</p> | 보도 의견참고 |
| 보도 | <p>뉴스데스크의 '택시파업(2월 20일)' 뉴스를 살펴보겠다. 택시파업으로 시민들 불편과 혼란을 객관적 팩트로 보도를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점에서 택시파업이 왜 일어났고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이 빠져있어 아쉬움을 갖었다. 균형적인 뉴스 전달이 필요하다고 본다(송인덕).</p> | <p>택시파업에 대한 원인과 진행과정 등은 서울 뉴스에서 다뤘기 때문에 지역 뉴스에서 또다시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은 중복된다고 판단됐으나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p> | 보도 의견참고 |
| 보도 | <p>뉴스데스크의 '대학가 졸업시즌'(2월 20일)에서는 대전지역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었다. 타 지역 보다 그 정도가 심각함을 말하면서 대안으로 실무위주 교육, 해외취업 확대, 산학협력을 꼽고 있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이 지극히 피상적임을 느꼈다. 오히려 청년취업을 잘 극복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를 발굴하여 보도를 해주었으면 설득력이 있었으리라고 본다(송인덕).</p> | <p>청년취업 극복사례도 결과적으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피상적으로 보일 지라도 그 해법들이 얼마나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모범적 사례 취재도 고려하겠다.</p> | 보도 의견참고 |
| 보도 | <p>LTE 현장 연결이 뉴스데스크에서 여러 번 이어졌다. 보여지는 현장이 뉴스가치가 높은 곳을 제대로 연결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 현장 중계로 연결된 장소가 홍보성으로 접근했는지,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 취재현장으로 선별이 되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송인덕).</p> | <p>LTE 현장을 우리 주변에서 서민들의 이야기를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소재 발굴에 주력하겠다.</p> | 보도 수용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교양 | <p>‘허참 토크 앤 조이’(2월 16일)에서 모터사이클 헬멧 하나로 세계정상에 우뚝 선 홍진 HJC의 홍완기 회장이 출연하여 그의 인생관, 기업관등을 소개하였다. 논산 출신인 홍회장의 창의성, 도전 정신 등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조그만 가내수공업에서 출발하여 현재 이르기까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난 내용이 들어나지 않았다는 점이고 수익금으로 고향 논산을 위해 더욱 할 일을 찾는 주인공에게 격려와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주었어야 하는데 ‘이젠 좀 쉬시죠?’라는 진행자의 멘트는 어울리지 않았다고 본다(유덕순).</p> | <p>칭찬에 감사하다. 홍완기 회장의 불굴의 도전정신은 모든 이에게 감동을 준다. 다소 아쉬웠던 점은 사전취재 때는 말씀을 재미있게 잘 하셨는데 녹화때는 방송을 너무 의식하셨는지 감동스토리가 잘 들어나지 못했다. 진행자들이 재미있게 이끌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도 홍회장 같은 본받을 인물들을 발굴하여 지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p> | <p>편성 수용</p> |
| 보도 | <p>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날에 종합편성채널에는 다양한 토론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박근혜 정부의 중요 정책 이슈를 다루었다. 박근혜 정부가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의구심을 갖는다. 인수위에는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가 전혀 없었고 앞으로 지방과 중앙의 상생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통령 취임식 같은 날에는 지역민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대전 세종 충남의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토론 프로그램을 특집으로 제작을 했었어야 한다고 본다(김경숙).</p> | <p>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새 정부의 지역 공약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이템들로 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p> | <p>보도 의견참고</p> |
| 교양 | <p>시사플러스의 ‘사고파는 장학사 승진의 지름길인가 부패의 지름길인가(2월 8일)’를 시청하였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는 듯했다. 옥의 티라고 할까 영상 일부분에 편집된 부분이 깔끔하게 되지 않아 불필요한 오디오가 맞물려 편집된 영상이 있었다. 전교조지부장 인터뷰할 때였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김경숙).</p> | <p>‘사고파는 장학사’편은 지적하신 대로 교육계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전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의혹이 들 정도다. 편집의 실수는 제작진에 연락해 시정조치 하였다. 앞으로 작은 실수라도 없도록 하겠다.</p> | <p>편성 수용</p> |
| 교양 | <p>아침이 좋다 코너인 ‘줍 인 이 사람’에 안희정 도지사를 소개하였다. 도지사의 하루 일과와 도정의 이모저모를 담았는데 과장하지 않고 담백하게 담은 영상이 진솔하게 비쳐져 보기 좋았다. 계속 분발을 바란다(한찬희).</p> | <p>‘줍 인 이 사람’은 항상 기대되는 코너이다. 행정가인 도지사를 진솔한 일상의 모습과 시청자 눈높이에 맞춘 인터뷰 구성으로 완성도가 있었다. 칭찬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p> | <p>편성 의견참고</p>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보도 | ‘장학사 승진 비리’는 시사플러스와 생방송 토론마당에서 같은 주제로 다루었다. 지역의 커다란 이슈이기 때문에 보도와 제작파트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다고 본다. 아쉬움이 있다면 출연 패널들이 겹친다는 것이다.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짚어볼 문제이다. 토론마당 출연진 섭외시 다양한 인력풀을 활용하기 바란다(김명수). | 지역에서 한정적인 인력풀로 어려움이 많으나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패널을 확보해 나가겠다. | 보도 의견참고 |
| 교양 | 시청자위원회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았다. 방송한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면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한편으로는 앞으로 제작할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제작진들로부터 구상 중인 아이템을 방송 전에 받아 같이 고민할 수 도 있고 시청자위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하기 바란다(김명수). | 시청자위원들의 좋은 지적이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좋은 소재(예를 들면, 토크&조이 초대인물, 훈훈한 미담, 공간 다큐 아이템 등) 제시하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 편성 의견참고 |
| 보도 | 뉴스데스크에서 취재현장을 LTE로 빈번하게 다루고 있다. 현장도 뉴스가치 있는 곳을 선택하여 연결했으면 한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느낌을 받는다(김영광). |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충남 서북부를 비롯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그리고 대전 광역권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 보도 수용 |
| 교양 | 시사플러스에서 다룬 「벼랑 끝에 선 사람들-유성기업 노동자」 편(2월 22일)은 일방적으로 노조 입장만 다루었다. 사측의 이야기도 담았어야 한다. 사측이 쉽게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시나 노동청, 법원, 검찰 측의 의견을 담아 구성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김영광). | 사측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노조쪽의 입장에 담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방송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 편성 의견참고 |
| 기타 | MBC 사옥에 부착되어 있는 로고 색깔이 흰색이라 외부에서 볼 때 두드러지지 않는다. 타방송사인 TJB는 색깔이 눈에 띄는데 이를 고칠 방법은 없는가(박희원) | MBC CI는 종합미디어 그룹을 지향하는 MBC의 비전을 담고 있고 회사 이미지 통합체계를 위해 2005년도에 도입되었다. CI색상이 네온흰색으로 한 것은 콘텐츠에 지향성을 심어주고 MBC의 일체감을 주기위해 본사와 지방사가 동일한 색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 경영 의견참고 |
| 기타 | 지난 번 대전MBC홈페이지 프로그램 다시보기 화면 화질과 크기에 대해 언급을 했었다. 이번 홈페이지에서 이를 개선해서 업로드한 것을 보니 좋은 기분이 들었다. 나날이 개선되고 발전하는 대전MBC를 기대한다(김명 | 프로그램 고화질 인코딩을 적용하여 화면크기와 화질을 개선하였다. 앞으로 더욱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노력하겠다. | 경영 의견참고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수). | | |